

■교육봉사단체-유스한국문화클럽

전통문화 학습, 타커뮤니티 찾아 공연

■ 교육봉사단체 유스한국문화클럽

유스한국문화클럽(Yoo's Korean Culture Club:YKCC)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주류 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학생클럽이다.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에서 여러 종류의 한국 무용(부채춤, 삼고무, 북춤, 장구춤, 가야금, 사물놀이)등을 다년간 학생들에게 교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몸으로 직접 익히게 하고 있다.

중·고생 30여명 고유 음악·무용 연습 스스로 행사준비, 협동 책임감 키워

■유스한국문화클럽(Yoo's Korean Culture Club)은

밸리의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 문화생가운데 중·고등 학생 30여명을 중심으로 조직된 봉사 단체이다. 밸리를 중심으로 발렌시아, 웨스트 LA, 할리웃, 칼라바사스, 산타모니카, 라크레센타, 가디나 등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2013년에 결성돼 지난 3년간 LA 카운티 지역의 크고 작은 커뮤니티 봉사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임원진은 ▲회장(Giselle Kim, 밴나이스하이 12학년) ▲부회장(Minji Park and Jai Lee, 그라나다힐스 차터하이 12학년) ▲총무(Julia Lee, 아카데미 오브 더 캐년스하이 11학년) ▲회계(Hannah(Che Yeon) Lee, 웨스트레이크 하이 11학년) ▲코디네이터(크리스틴 김, 엘카미노 리얼타이 하이 10학년)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연을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한국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활발한 활동으로 주류사회에서도 주목

지난해 디즈니랜드 설날 축제, 클리블랜드 차터하이 교사워로잔치, USC 한국 문화 축제, 밸리 노인회 무료공연, 밸리 한인회 8.15 광복 축제, 통일 안보 비전 발표대회, 북부 한인회 추석 행사, 휴스턴 컨트리 페어, 밸리연합감리교회 노인학교 졸업식, 몬트로즈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등에 참가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커뮤니티 서비스크레딧도 받고 미첼 잉글랜드 제12지구 LA 시의원, 케빈 데리온 주상원의장,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미 주류 언론에서도 화려한 한국 전통 음악공연으로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다.

■스스로 행사 진행으로 자율성 키워

학생 스스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면서 책임감을 길러주고 실제 행사도 본인들이 파트별로 임무를 맡아 시행함으로써 학생간의 결속



유스한국문화클럽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주류 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학생클럽으로 모든 업무를 스스로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유스한국문화클럽 회원들이에서 지난해 라카나다 공원에서 광복절 기념 공연후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단원들이 파트별로 ▲공연장 사전 답사 ▲MC 노트 준비하기 ▲날짜와 주소를 단원에게 확인해 알리기 ▲라이드 서비스 ▲화장하고 의상입는 것 도와주기 ▲단원 의상과 소도구 점검 ▲CD와 공연에 관한 설명 준비 ▲공연시 순서를 파악해 단원들 순서에 맞춰 준비시키기 ▲음료수와 음식서비스 ▲악기 나르는 것 도와주기 ▲사진이나 비디오킷 찍어 기록으로 남기기 ▲공연 끝난 후 주위를 깨끗이 치우기 ▲악기및 의상 점검 ▲악기를 챙겨 제자리에 정렬하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공연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스스로 시행하고 있다.

유희자 설립자는 “한국전통 문화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협

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과외활동 크레딧을 받아 대학진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니어들과의 합동공연으로 노인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도 달래며 1세대와 2세대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니어들로 구성된 춤마니단(회장 예나 필강단)과 함께 양로원과 노인회 등 위문공연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단원들도 중고생을 중심으로 6세부터 74세까지 폭넓은 연령대에 포진해 있다.

■사업계획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을 보존하는데 힘쓰며 타 인종에게도 우리 문화를 알림으로써 커뮤니티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 문화도 접하게 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며 서로 협조하는 협동심을 배우게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무대에 서게 하면서 자신감도 키우게해 앞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각종 기념일 행사는 물론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전통 음악공연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기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회원으로 활동하기 원할 경우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된다.

▲연락처
주소:19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전화번호(818)456-8022, www.hizakor-dance.com (박흥를 기자)

‘마지막까지 기대’ 대학측에 의사전달

■대입가이드/‘보류’통보

조기전형에서 애매한 입장에 놓이는 수험생들이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정시전형에서는 '대기'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다. 특히 대기로 분류된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 후에도 상당 기간 기대와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차분해지자

우선 대학 입학사무처로부터 대기자 명단에 오른 지원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은 합격통보를 한 지원자들의 실제 등록 여부를 기다린다. 합격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등록 의사 여부를 전달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꾸려질 신입생 수를 정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원 부족이 나타나면 대학이 정한 순서대로 대기자들 가운데 일부를 보충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대기로 분류된 수험생들이 다른 대학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고 어떤 길을 최종 선택할 것인지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대기자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해 통보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기 상태인 대학이 정말 꿈의 대학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기는 불합격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전히 입학의 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며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대기자로 기회를 기다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기대해 보겠다면 대학에 대기자로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대신 대학이 귀찮을 정도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

수상기록·최신 성적 등 장점 업데이트

복수 합격시 ‘차선’ 대학 입학절차도 진행

나 두 가지 정도는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정말 그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면 자신의 장점이거나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 성적에서 더 나은 성적을 올려 놓고 이를 대학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 측에 대기자가 몇명이나 되는 문의를 보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자신의 순서가 몇 번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가 합격 가능성을 짐작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추가 합격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2 옵션을 따져보자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고, 가장 원했던 대학이 대기라면 일단 합격한 대학들을 먼저 비교해 보고, 학비보조 내용 역시 따져보며 차선을 준비해 두도록 한다. 그리고 차선으로 결정한 대학에 등록의사를 전달하고 디파짓

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학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라도 꿈의 대학에서 추가 합격의 기회를 준다면 그때 다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되,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비록 원하는 대학이었지만 학비 보조 내용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차선으로 택한 대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위권 대학에만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단 한 곳도 합격하지 못한 채 한 두 곳으로부터 대기자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롤링 어드미션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은

그 대표적인 예로 아직까지 대기자 명단에 있지만 아직도 입학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편지 및 필요한 문서를 통해 전달해야한다. 입학사정관들은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전반적인 합격 자격 여부의 틀을 구성한다. 그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각종 학력경시대회 수상, 출판물, 공연, 전시회, 새로운 봉사활동 및 업적, 운동팀에서의 새로운 성과나 특히 성적 향상되었다면 이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편지 작성 시, 편지 수취인을 가능한 대기자 명단에 들어간 것을 알려준 입학 담당관 이름 앞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입학담당관의 연락처는 입학 대기자 통보를 보낼 때 이메일이나 편지 속에 있거나 직접 대학의 입학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된다. 편지의 서두에는 꼭 지원자가 그 대학의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들어간 누구라는 것을 밝힌다.

또한 그 대학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 '1순위'라는 것과 입학 허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업데이트된 구체적인 스펙들을 첨부자료들로 보완하여 설명한다. 아울러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들 중 가장 골목할만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입학할 경우 대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이어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것과 어떤 수입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 등에 대해 쓰도록 한다. 하지만 추가할 새로운 내용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들어 있지도 않은 클럽을 조직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업데이트 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인학부모 심포지엄

IKEN 23일 오후

세계한인교육자협회(IKEN·회장 엘레나 풀가 주최하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학부모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후 12시~4시 하시엔다하이츠 시다레인(Cedarlane) 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 ▲재미동포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민병수 변호사)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혜택(엘렌 박 교장·김성숙 한국어 교사) ▲이중언어 교육이 두뇌 발달에 끼치는 영향(파울라 수아레스 UCLA 교수) ▲자녀의 영재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나(수지 오 교장) ▲우리 아이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나(엘레나 풀 IKEN 회장) 등의 강좌가 진행되며 학생사물놀이 등의 특별공연도 있게된다.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주소:16333 Cedarlane Dr., Hacienda Heights ▲예약문의: (626)933-8002, sungkim27@gmail.com

무료 학력 진단 테스트

YES CLASS 1월 한달

YES CLASS(대표 박준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한달간 무료 학력 진단 테스트를 실시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심있는 학부모들은 가까운 YES CLASS 러닝센터를 방문해 영어와 수학 과목에 대한 무료 학력 진단 테스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YES CLASS러닝센터의 위치는 www.YesClass.com을 방문 하면 찾을 수 있으며 가까이 러닝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접목한 YES CLASS는 현재 미 전역에 22개의 러닝센터를 운영중이다. YES CLASS는 강사(에스콧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 학습에 온라인 웹북을 가미해 공부에 재미를 더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즐겁도록 만들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